

개화기 교과서 「四民必知」의 저자

美 호머 헐버트 (1863~1949년)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지금 서울 양화진(楊花津)의 외국인 묘지(마포구 합정동)에는 호머 헐버트가 잠들고 있다. 헐버트(Hulbert, Homer Bezaleel 1863~1949년)는 1949년 8월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고 86세의 고령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왔으나, 노년에 무리한 여행이 되어 위생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6일 후 별세했고, 그 후 여기 묻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선교사로 대학 졸업과 함께 조선에 건너왔던 그는 원래 조선 정부가 만든 최초의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채용한 교사 3명중 한사람으로 이 땅을 밟았다.

그 후 그는 조선 청소년의 교사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이를 막아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해서 우리 역사는 그를 독립운동의 제34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를 서울에 초청했던 것도 바로 그런 헐버트의 공로를 칭송하려던 계획에서 였다. 바로 그 초청에 따라 한국에 왔다가 유명을 달리고 말았지만 그에게는 1950년 건국공로훈장(독립장)을 추서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이 땅의 근대과학

보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달의 과학인물로 내가 헐버트를 꼽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외국인 묘지의 그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 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헐버트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1889년 순 한글책으로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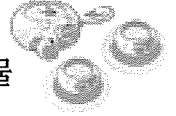
그럴 정도로 헐버트는 많은 한국인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 이방인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그가 한국의 근대 과학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주로 그가 지은 개화기의 교과서 「사민필지」(四民必知) 때문이다. 원래는 「수민필지」라는 옛 한글투로 1889년에 처음 나온 순한글 책이다.

그러나 곧 이 책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한문판이 더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고종 32)에 학부(學部=당시의 교육부)에서 백남규(白南奎), 이명상(李明翔) 등에게 명하여 한문본을 내게 했는데, 「四民必知」가 그것이다. 한글 책 보다는 한문 책이 더 읽기 쉬운 형편이 당시 지식층이었

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1895년 한문본이 발간된 이래 1905년 한문본 개정판이 그리고 1909년에 재판이 나왔다. 책이 쓰여진 이래 19년 동안 육영공원 뿐만 아니라 이후 설립된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등교육의 기본이 된 셈이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 하인 1911년까지 사용되었다. 그 후에도 몇차례 더 나와 개화기 조선의 지식인들을 계몽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사실 「사민필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리책이지 과학책은 아니다. 하지만 개화기 초의 조선에는 천문지리에 대한 지식이 원체 깜깜해서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땅은 또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헐버트의 「사민필지」는 이런 조선의 청소년 또는 지식층에게 천문지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말하자면 당시의 천문학과 지리학에 대한 지식을 고루 전해준 셈이다.

한글판 「사민필지」는 1백61쪽으로 한쪽은 28글자씩 17줄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판은 제1장 지구, 제2장 유럽주, 제3장 아시아주, 제4장 아메리카주, 제5장 아프리카주로 되어 있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각 주(洲)를



「四民必知」엔 태양계와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일식과 월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6대주도 유럽(歐羅巴),
 아시아(亞細亞), 아메리카(亞美利加) 등으로 표현했으며
 나라 이름은 스웨덴(瑞典), 덴마크(丁抹), 독일(德國), 영국(英吉利) 등으로 표시했다.

설명하는 부분은 지리에 해당하여, 각 주의 대표적인 나라와 그 나라들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다.

각 나라의 위치, 기후, 산물, 인구, 수도, 산업, 군사, 학교, 종교 등등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장에 들어있는데, 태양계와 지구의 모습 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아직 땅이 둥글다는 사실조차 많은 조선인에게 새로웠다.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달의 삭망현상이 일어나는 이치를 해설해 준다. 일식과 월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기후와 대륙, 그리고 해양과 인종문제까지 소개하고 있다. 구름, 바람, 서리, 이슬,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지진과 바닷물의 조석(潮汐)현상도 설명되어 있다. 지리책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었던 지구 과학의 지식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 첫머리에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

‘땅덩이-

태허 창명한 즘음에 무수한 별떨기가 있으되 떨기마다 각각 큰 별 하나씩 있어 적은 별들을 거느려 한 떨기를 이루고 적은 별들은 그 큰 별을 돌아 에워 돌아가니 태양이 큰 별이라...

여덟 별이 속하였으니 하나는 주피터요, 둘은 비너스요, 셋은 새틴이요, 넷은 마스요, 다섯은 이 땅이요, 여섯은 넵츄니요, 일곱은 유레너스요, 여덟은 머큐리요...’

아직 여러 행성에 해당하는 우리말조차 모른 채 주피터(목성), 비너스(금성), 새틴(토성), 마스(목성), 넵츄(해왕성), 유레너스(명왕성), 머큐리(수성) 등을 영어 그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1895년의 한문 번역판은 지은이 이름을 한자로 흘법(紇法)이라 표기하고, 김택영(金澤榮)편찬, 백남규(白南奎)·이명상(李明翔)공역으로 밝히고 있다. 2권 1책(72장)인데, 한글본에는 10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한문본에는 성좌도(星座圖) 및 지구전도, 6대주 각각의 지도가 실려 있지 않다. 유럽(歐羅巴), 아시아(亞細亞), 아메리카(亞美利加), 아프리카(阿非利加) 등의 한자 표현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정도이다.

특히 나라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는 더욱 생소함을 느끼게 된다. 놀웨이(那威), 스웨덴(瑞典), 덴마크(丁抹), 독일(德國), 화란(荷蘭), 벨기에(白耳義), 영국(英吉利), 프랑스(法蘭西), 스페인(西班牙), 포르투갈(葡葡

牙), 스위스(瑞西), 이탈리아(意大利), 오스트리아(奧地利亞), 헝가리(凶牙里) 등 유럽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두 한자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영어학교 교사로 우리나라에

헐버트가 조선에 오게된 것은 당시 최초의 영어학교에서 조선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1886년(고종 23) 9월 조선에 세운 최초의 신식 학교였다.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883년 민영익(閔泳翊)을 대표로 하는 소위 보빙사(報聘使) 일행 9명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일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여러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귀국한 뒤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새로운 교육기관이었으며, 즉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설치였다. 이 교육기관에는 처음으로 미국 교사들이 초빙되어 왔는데, 이들이 헐버트(H. B. Hulbert), 벙커(D. A. Bunker), 길모어(G.W. Gilmore) 등이며, 1886년 9월 23일 개교하게 된다. 그 후 3년 만인 1889년에는 길모어가, 1891년에는 헐버트가 각각 사직하고, 1894년에는 벙커마저 사임하고, 육영공원은 설립한지 8년만인 1894년 폐지되고 말았다.



미국 버몬트주(州) 뉴헤이번 출생인 헐버트는 1884년 다트머스대학을 졸업, 그 해 유니언신학교에 들어갔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그가 1886년(고종 23) 조선 정부의 초청을 받고 내한(來韓)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들 미국 교사들은 처음에 미국식 교육을 지향하여 교과목에 과학도 포함시키고 있었다. 말로는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했지만, 이들은 신식 교육기관으로 이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세우려 했음을 당시 기록은 전해준다. 당시 고관의 아들들이나 겨우 입학할 수 있었던 이 귀족학교는 오래지 않아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은 개화

기에 조선의 개화에 앞장선 지도자가 된 경우가 많다. 이 부분 역시 연구를 깊이 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05년 을사조약 후 나라를 실제로 일본에 빼앗기게 되자, 고종 임금은 이에 반발하여 세계 열강에 부당한 일본의 침략을 호소하기 위해 1907년에 화란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회담에 이상설(李相高), 이준(李儔), 이위중(李瑋鍾) 등과 함께 헐버트를 보내어 조선의 주권 회복을 위해 힘쓰도록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헐버트는 또 조선 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들어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이것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1908년 미국 매서

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19년 3·1운동에는 조선 독립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徐載弼)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한국건문기 The Passing of Korea」 등이 있어 그가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데도 공헌했음을 증언해 준다.

할보(轄甫) 흥법(統法)이란 한자 이름도 갖고 있던 헐버트는 1903년 10월 정동(貞洞)에서 열린 국제적 모임에서 결성된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오늘 서울의 YMCA의 전신이니까, 그는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의 창시자로도 꼽을 수가 있다. ①7

과학만평



그림 : 崔民